



아시아리뷰

제15권 제1호(통권 33호), 2025

서평

문을 수 없는 역사의 기억

타냐 브레니긴 지음, 박민희 옮김, 『기억의 장례: 문화대혁명 이후의 나날들』 (2024, 마르코폴로)를 읽고

장윤미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연구교수

I. 모순으로 뒤얽힌 폭력의 역사

『기억의 장례』는 2008년부터 7년 동안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었던 영국 가디언 기자 타냐 브레니긴이 문화대혁명을 겪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엮은 책이다. 책의 원제는 “Red Memory”이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뜨겁던 기억, 그래서 ‘붉은’ 기억이지만, 동시에 폭력과 증오가 난무했던 잔인한 기억이자 침묵을 강요당한 기억이다.

저자는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기자 특유의 예민한 감각과 뛰어난 필력으로 손에 잡힐 듯한 생생한 묘사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책에서는 진실에 더욱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기자로서의 직업윤리와 함께 인간으로서 이러한 비극적 역사를 껴안으려는 마음도 느껴진다. 이 책의 초점은 여느 문혁 연구서처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그것과 함께 살았고, 지금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왜 중요한지”(34쪽)를 묻는다. 즉 중국 사회가 이러한 비극적 역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이후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역사를 어떻게 껴안았는지, 그리고 폭력적으로 폭발한 대중의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했는지를 묻는다. 저자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나의 역사로, 우리의 역사로 껴안을 수 있을지 묻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문혁이 단지 중국만의 역사가 아니

라, 문혁 역사를 통해, 역사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를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즉 이 책에선 문혁을 독재정권의 이상한 나라에서 펼쳐진 야만적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인류의 역사로 마주한다. 필자는 “나는 내 나라(영국)에 대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중국으로부터 배웠다”(40쪽)고 적고 있다.

저자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혁명에 뛰어들어 홍위병뿐 아니라 조반파(造反派)도 있고, 직접적인 신체 폭력으로 고통받고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고발하여 처형당하게 만든 아들도 있다. 오로지 혁명만이 정의로운 행동 평가의 기준이 되고, 위대한 대의를 위해 ‘녹슬지 않는 나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던 시대에, 낡은 것의 파괴와 사람에 대한 폭력은 모두 혁명적 행동으로 치부된 시대였다.

가장 전제적이고 폭력적이면서도 대중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하여 커다란 해방감을 느꼈던 이 모순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혁 시기에는 권력자를 비판하며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지만, 또한 무심코 한 발언으로 밀고를 당해 비난과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름으로 진행된 계급투쟁이었지만 혈연과 출신 성분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우선 낡은 질서를 파괴하면서, 공권력은 무너지고 내전 상황에 이르렀다. 이상주의적 목표가 모든 일탈과 폭력을 정당화했다. 문혁은 국가주석에서부터 미천한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기도 했으며, 대중들의 폭력적인 집단적 ‘독재’가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이다. 사회운동은 흔히 ‘권력의 탄압’ 대 ‘인민의 저항 및 희생’ 구도로 이해되지만, 문혁은 최고 지도자가 제창하고 인민 대중이 이에 호응하여 폭력의 서사에 적극 가담한 비극의 역사였다. 개인숭배가 절정에 달한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지만, 획일화된 담론 속에서도 다양한 논쟁과 대중 간의 파벌 투쟁이 벌어진 운동이었다.

이 모순투성이의 역사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1981년 ‘역사결의’의 형식으로 과거를 평가한다. 당의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대로 방향을 돌렸다.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평가인가? 과연 평가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 특히 사회 전체에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껴안아야 할까? 역사결의는 공산당 자신에게 일정한 교훈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수많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도,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폭력과 살육에 대해 사회적으로 성찰하며 공론화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 서단(西單)의 벽이 열리면서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억울한 청원들과 이야기가 대자보를 뒤덮었고 ‘베이징의 봄’이라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열렸지만, 이는 곧 공산당에 의해 통제됐다. 문혁은 그렇게 공산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리되었고, 민간의 비극은 덮여졌으며, 수많은 인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어야 했다.

II. 역사와 기억

중국공산당은 ‘역사’를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다. 정당성의 근거가 된 역사는 ‘올바른’ 역사로 다뤄진다. 정당성을 확보한 역사로서 도덕적 서사를 부여해야 일당 지배체제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역사’는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 목표 제시나 사회적 동원이 필요할 때 가동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백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세 번의 역사결의(1945년, 1981년, 2021년)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평가하고 정당화하며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문혁이 끝난 뒤 이루어진 1981년의 역사결의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문혁과 같은 비극의 역사는 ‘역사적 허무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허한다. 중국에서 역사란 정치 그 자체인 것이다.

문혁이라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져다준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당에 의한 독점적 역사 평가를 통해 정책을 전환해 버렸다. 온 나라와 인민대중이 함께 겪은 역사를 당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리해 버린 것이다. 10년간의 문혁 기간에 등장했던 이상주의적 논의들, 이러한 이상주의의 좌절로 인한 허무감, 잘못된 반동사상에 대한 비판과 사상개조를 통해 혁명을 실천한다는 자부심과 그 과정에서 오는 환멸감,

혁명의 이름으로 진행된 인간에 대한 가학적인 폭력과 정당화, 대중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충돌들.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반성하고 성찰하여 다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갈 밑거름으로 삼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대중의 에너지가 폭발했던 역사는 오히려 가부장적인 당의 권위에 의해 봉합되었고, 대중이 직접 겪었던 경험과 기억은 당에 의한 역사결의로 매장되었다. 가담자 대부분은 침묵했고, 수많은 희생자는 역사 밖으로 추방되었다. 중국공산당은 ‘결의’의 형식으로 자신이 걸어온 역사를 평가하고, 또한 중국 체제는 역사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적 사건은 허무주의로 금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만이 알려지고 선전된다.

허자오펜(2018)은 현대 중국에 나타난 정신적·사상적 곤경의 원인을 1980년대 초반의 사건과 사조에서 찾는다. 즉 문혁이라는 혁명적 이상주의의 좌절로 인한 깊은 허무감과 환멸감, 거기서 비롯된 파괴적 에너지와 충돌의 힘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국가적 기획에 인민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자원들을 소멸시키고 이로부터 허무주의적 정신위기를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시진핑 시대로의 전환 논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시진핑 시대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지난 개혁개방의 역사가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정도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회귀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역사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위기의식에 기반을 둔 국가 재건의 기획, 당의 동원에 의한 사회 재조직을 통해 끌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중이 함께 겪었던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문혁을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게 입막음함으로써, 중국 안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이상과 현실에서 증폭된 폭력에 대한 치절한 비판과 성찰 없이, 문혁이라는 역사에서 폭발했던 대중의 에너지 그 자체를 지워버렸다. 이로 인해 문혁 역사는 그나마 문혁을 기억하는 세대와 함께 사라지고 있고, 청년 세대에게 문혁은 남의 나라 얘기보다 낯선, 이해하기 힘든 역사가 되었다.

인민대중이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 되려면, 함께 공유하는 기억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는 뭔가 성취했던 경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기억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인민이 함께 겪었던 문혁의 역사는 당의 공식 평가와 함께 수많은 기억의 조각으로 잘려 나가고 사라졌다. 사회 안에 있어야 할 당은 사회 전체를 잠식하며 스스로 사회적 힘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새로운 역사를 추동할 수 있는 인민들이 공유하는 기억과 경험이 없다. 당과 인민 간의 호응적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기억과 정체성이,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상호작용을 통해 성찰하며 축적해오지 못했다. 당에 의해 주입되는 기억은 인민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억이 아니다.

중국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혁명이든 개혁이든, 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통된 목표를 향하는 사회적 힘과 공동체 의식은 당의 선전과 훈계와 교육만으로는 길러지지 않는다. 대중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함께 매진하는 노력과 시간, 무엇인가에 대항하며 함께 싸운다는 저항의 감각, 그리고 대중들의 힘으로 끝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경험 등으로 축적되고 만들어진다. 문혁의 극단적 이상주의는 비극적 폭력을 낳았지만, 수많은 대중 각자에게는 서로 다른 기억을 남겼다. 이 기억들을 역사 밖으로 던져버리고 꼭꼭 눌러놓은 상황에서 대중들이 다시 어떤 이상적 목표를 위해 뛰어 들기는 힘들다.

모든 것을 당의 영도 아래 당이 대신 정리하고 평가하고 제시해주는 사이, 자기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시간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중국 사회에 되돌아오고 있다. 경제 분야에 압축 성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와 역사를 통한 교훈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 문혁에 대한 기억이 파편화되면서, 대중은 자기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역사의 구경꾼으로 남았다. 무관심이 자기방어의 형태가 되었다. 매장되어 눌린 기억은 가끔 불쑥 튀어나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III. 서로 다른 기억과 역사의 책임

저자가 만난 사람 중에는 문혁의 상징성을 갖는 인물들이 있다. 초기 문혁에서 펄박을 받은 왕시린(王西麟)과 벤중원(卞仲耘), 그리고 충칭 조반파 수장이었던

저우자위(周家渝)다. 우선 초기 문혁에서 희생된 사람은 문화예술인이나 지식인이 많았다. 이 운동은 ‘문화’에 대한 혁명에서 시작되어, 1966년 후반 대중적으로 퍼지기 이전까지는 주로 학교나 문화 영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흔히 ‘붉은 팔월(紅八月)’이라고 불리는 1966년 8월은 고위 지도자들의 자녀들로 조직된 노홍위병(老紅偉兵)들이 운동을 주도하며 지주 출신이나 우파, 반동분자 등 이른바 ‘반혁명분자’들에게 가학적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던 기간이다.

이에 따라 특히 ‘반동’적인 부르주아적 예술 작품을 추구하는 수많은 문학과 예술가들이 희생되었다. 중국의 교향곡 작곡가 왕시린이 대표적이다. 그는 1955년 당시 18세의 나이에 군사음악대학에 진학하여 그 누구보다 당의 혁명 사업에 앞장섰지만, 문혁 기간 동안 열 번에 걸친 비판 집회를 견뎌야 했다. 문학과 예술은 혁명 기계의 부품일 뿐이었고, 이 과정에서 모욕과 수치심에 수많은 예술가가 자살했다. 왕시린은 이 혹독한 고통의 역사를 생존의 힘으로 버텼다. 국민당 정부에서 일한 부모의 출신 성분이 더욱 가혹하게 그를 압박했다. 왕시린의 온몸에 새겨진 폭력의 흔적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2023년 왕빙(王兵) 감독이 왕시린을 나체로 출연시켜 정치가 어떻게 한 사람을 파괴하는지 카메라에 담아 〈Man in Black(黑衣人)〉이라는 다큐로 남겼다.

학교 현장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 의해 맞아 죽은 첫 희생자는 벤중원이다. 그녀는 당시 고위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명문 베이징사범대학 여자부속 중학교의 교감이었다. 저자는 그의 남편 왕징야오(王晶堯)를 인터뷰했다. 역사학자인 왕징야오는 아내가 죽은 다음 날 카메라 한 대를 사서 시신을 카메라로 찍었다. 아내의 피 묻은 옷, 부풀어 오른 얼굴, 온몸의 시커먼 피멍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홍위병들이 집 안팎에 붙인 욕설로 가득한 대자보까지 모두 카메라로 기록했다. 2007년 후지에(胡傑)의 다큐 〈나는 비록 죽었지만(我雖死去)〉에서는 죽은 희생자의 시신을 통해 역사의 진실된 기록을 전달한다.

벤중원은 은행가 집안의 출신으로 국민당 간부 집안 출신인 왕시린과 마찬가지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다. 운동 초기 노홍위병들이 내세운 구호 중 하나는 혈통론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지도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지킬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혈통론의 관점은 이후 비판받기도 했지만 문혁의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났다. “아버지가 영웅이면 아들도 영웅이고, 아버지

가 반동이면 아들도 나쁜 놈이다(老子英雄兒好漢, 老子反動兒混蛋).” 당시 베이징사범대학 여자부속중학교의 학생회 간부였던 류진(劉進)과 쑹빈빈(宋彬彬)은 모두 고위직 부모를 둔 자녀들이었다. 학생회 간부로서 벤중원의 죽음에 책임이 없지 않았다. 특히 1966년 8월 5일 벤중원이 사망하고 약 2주 뒤인 8월 18일 천안문 광장의 연단에 올라가 마오쩌둥에게 완장을 증정한 쑹빈빈은 문혁의 상징이 되었다. 마오쩌둥으로부터 송야오우(宋要武)라는 혁명에 어울리는 이름을 선사받고 그 이름으로 쓴 글이 인민일보에 실리면서, 그녀는 홍위병과 폭력의 대명사가 된다. 이후 쑹빈빈이 벤중원을 때려죽였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녀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후 2014년 개교 90주년 행사에 참여한 쑹빈빈과 류진 등이 벤중원의 흉상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한다. 그러나 벤중원의 남편 왕징야오는 이들의 사과를 거부했다. 저자가 만난 왕징야오는 죽을 때까지 가해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과연 정의 없는 용서가 가능할까? 사회적으로 말하는 것을 억압하고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사건인데, 이러한 부정의한 상태에서 개인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자는 당시 혁명에 가담했던 충칭(重慶) 조반파 사람들도 만났다. 66년 10월 이후 학교에서 도시의 각 직장 단위로 운동이 확산하면서 평민 출신들이 조직한 대중적인 혁명파가 등장한다. 조반(造反)이란 저항, 혁명의 의미로 당시 혁명파를 조반파로 불렀다. 67년 이후 충칭에서는 충칭대학을 중심으로 한 815파와 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끝장파(反到底) 간의 무장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수류탄과 기관총, 탱크까지 동원되어 거의 내전이나 다름없었으며, 민간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충칭에서만 천 명 이상 사망했다. 저자는 당시 815파를 이끌던 저우자위를 만났는데, 그는 문혁이 끝난 뒤 16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저우자위는 문혁이 끝난 뒤 당에 의해 자행된 대중에 대한 탄압을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평범한 대학생 출신이 문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여겼으며, 문혁이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과정이었다고 증언한다.

전국의 조반파들이 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왔던 90년대 중반은 중국의 개혁 개방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다. 자본주의식 개발의 열풍 속에 수많은 노동자

가 해고당하고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던 때였다. 저우자위와 같은 마오주의자들은 덩샤오핑의 개혁을 마오쩌둥이 그토록 경계했던 반동 세력에 의한 자본주의 복벽이며 일종의 사기라고 여기면서, 유토피아(烏有之鄉)라는 서점과 웹사이트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은 대대적인 노동자 해고 물결 속에서 대중적인 좌·우파가 형성되고, 이들 사이의 충돌이 격렬하게 진행되던 때였다. 조반파 출신의 마오 좌파들은 노동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평등했고 소속감을 갖고 함께 싸웠던 마오쩌둥 시대를 회고하면서 그리움을 표출하였다.

충칭의 사핑바(沙坪壩) 공원에는 문혁 당시 무장투쟁을 벌이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무덤이 남아있다. 전국 유일의 조반파 추모비인 썸인데, 충칭시가 2009년에 역사 유적지로 지정했지만, 평소에는 문이 닫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충칭 조반파의 이야기는 2019년 다큐 감독 양맹(楊猛)이 〈충칭살인기억(重慶殺人記憶)〉에 담았다. 다큐는 2013년 당시 보시라이 충칭 당시기의 지휘 아래 한창 “혁명이 부르기와 범죄 때려잡기(唱紅打黑)” 캠페인이 벌어지던 때를 배경으로 하며, 문혁 당시 두 파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문혁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대체로 역사가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두 파벌 간의 투쟁이 진행되면서 점차 극단적인 복수(仇恨) 심리가 불타올랐고,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원통함, 그리고 절대적 카리스마를 가진 마오쩌둥 같은 구세주(大救星)를 바라는 심리도 엿볼 수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여자부속중학교 출신인 왕여우친(王友琴)은 문혁이 끝난 뒤 사건의 조각을 모아 기록을 남기고, 2000년 〈Chinese Memorial(文革受難者紀念園)〉이라는 웹 사이트에 사람들의 증언과 경험담을 모은다. 그녀에 따르면 당시 잔인한 8월에 베이징에서 희생된 사람은 1,770명에 달한다. 그러나 문혁 당시 공안부장 셰푸즈(謝富治)는 홍위병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다. 문혁이 끝나고 대다수의 조반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폭력 행위로 처벌받고 형을 살다가 나온다. 책에서 저자와 인터뷰를 했던 저우자위도 16년, 정즈성도 10년 형을 받았다. 그러나 초기 홍위병들은 선생의 죽음과 관련하여 단 한 명도 자백하지 않았고, 한 번도 재판을 받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쑹빈빈 자신은 역사적 누명을 썼다고 말하지만, 2024년 비교적 평온하게 세상

을 떠났다. 반면, 문혁 당시 혈통론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위뤄커(遇羅克)는 27세의 한창 나이에 국가 기관에 의해 참혹하게 총살당했다. 중국공산당은 문혁이 끝나고 고위 지도자 자녀들이 참여했던 조직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해주었지만, 대중 조반파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죄를 묻고 처벌했다. 문혁이 한창 진행될 때 혈통에 따라 혁명의 영웅이나 반동이 되었듯이, 문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혈통에 따라 죄가 있고 죄가 없었다.

문혁의 희생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홍위병이나 조반파로 상징되는 대중 폭력이다. 2003년 촬영된 문혁의 대표적인 다큐 〈모닝썬(Morning Sun, 八九點鐘的太陽)〉에서는 초기 문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개 지식인이나 간부 등이 문혁의 희생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초기 문혁의 집단 살인에서 희생된 사람들보다 1967년 여름부터 진행된 각 지역의 파벌 간 무장투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또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후 숙청 과정에서 사망한다. 문혁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5%, 즉 반 이상의 사람들은 68년 봄부터 가을에 걸쳐 진행된 ‘계급대오 청산’ 과정에서 사망한다. 이 잔인한 숙청 과정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가 파벌 조직 간의 무장투쟁에 의한 사망자 수의 무려 3배 이상에 달한다(Walder, 2014). 즉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문혁의 가장 폭력적인 시기는 1966년 여름에서 1967년 초 탈권(奪權)에 걸친 홍위병·조반파 노동자들에 의한 조반운동 시기도, 1967년 여름부터 1968년 여름까지 벌어진 파벌 간의 무장투쟁 시기도 아니고, 1968년 중반 이후의 ‘질서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것이었다. 흔히 우매하고 미망(迷妄)한 대중들에 의해 자행된 무자비한 광기로 상징되지만, 기실 문혁은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자행된 위로부터의 잔인한 국가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역사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

IV. 시진핑 시대, 문혁의 재현인가?

저자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던 시기는 시진핑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다. 책에서는 인터뷰와 함께 억압과 선전, 역사를 활용한 통치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진핑 시대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2013년부터 확연히 달라진 변화 속에서 저자는 거의 마지막으로 문혁 경험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책 속의 인물들은 때로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의미가 없다고 여기기도 했다. 지금은 이마저도 불가능한 일이다. 개혁 이후 민간에서는 문혁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웹사이트에서 각종 기록을 모아둘 수 있었다. 자유가 있었다기보다는 당국에서는 “일을 일으키지만 않으면(不鬧事)” 무엇을 하든 그냥 내버려두었다(放).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사회 통치구조를 바꾸고 민간의 활동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총리였던 원자바오는 정치체제 개혁이 없으면 문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등장한 많은 문화적 퍼포먼스들은 중국 사회가 다시 마오쩌둥 시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문혁의 재현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드물긴 하지만 ‘애국’의 이름으로 동료와 이웃을 감시하고, 수업 중 선생의 언행을 고발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더욱 획일화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사회는 다시 문혁 시기로 회귀하는가? 개인적으로 문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구조와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내외적 관점으로 확장해 보았을 때 과거 문혁 시기와 현재 중국 사회의 유사한 흐름이 있다.

첫째, 기존 강대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중국 중심의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고 이를 선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중소분쟁 이후 중국공산당은 소련이 이미 수정주의로 돌아섰고, 따라서 중국 자신이 사회주의 종주국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중국만이 세계혁명의 진정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1962년 마오쩌둥은 세계혁명을 이끌 자신과 중국의 영도력을 강조했고, 세계혁명이 중국의 일상생활과 즉각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확산했다(로벨, 2024). 이로써 문혁을 개시하고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시진핑 시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정세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동승서강(東昇西降)’의 시대로, 세계의 발전과 안보를 중국이 이끌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문혁 시기에는 제3세계를 대상으로, 현재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국제적 연대

를 표명하며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 이러한 대외적 전략을 추진력으로 삼아 중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려 한다.

둘째, 국제주의적 성격과 함께 강한 민족주의의 경향을 보인다. 문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이라는 국제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 투쟁의 대립선은 정치적 입장이나 혈통 등 부모의 출신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띠었고,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를 배척했다. 제국주의에 맞서며 제3세계와의 연대와 저항을 외쳤지만, 소련 혁명을 대체하는 중국 스스로를 세계혁명 운동의 새로운 중심으로 선전하며 자민족중심주의의 성격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 시기에 강조하는 “인류운명공동체”라는 메시지는 보편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꿈이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언제나 보편주의의 이름으로 중국화를 진행했고, 마르크스주의의 이름으로 세계혁명을 독려하면서도 혁명을 중국화했다.

셋째, 내부 투쟁(개혁)의 원동력을 대외적 메시지에서 가져오고, 또한 외부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며 내부 투쟁(개혁)을 추진한다. 문혁은 계급투쟁의 원동력을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결의 각성을 고취하면서 진행하였다. 시진핑 체제에서는 개혁의 원동력을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가져오며, 이를 “두 개의 백 년”이라는 역사 프레임을 통해 고취한다. 문혁 시기의 대립하는 두 노선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반동노선, 그리고 중국 주도의 세계혁명과 수정주의·제국주의 간의 투쟁으로, 내부와 외부의 대립 노선을 연결했다. 당시 국가주석인 류샤오치의 죄목은 “중국의 흐루쇼프”였고, 대중적으로는 “해외관계”(주로 대만, 홍콩, 마카오에 친인척을 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시진핑 시기에는 “중국식 현대화” 담론으로 미국과의 체제, 가치, 제도 경쟁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였다. 이른바 “외부세력”은 적아(敵我)를 구분하는 중국 통치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넷째, 문혁 시기에는 소련으로부터, 지금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한다. 문혁 시기에는 삼선(三線)건설이 국가 투자의 거의 절반을 집어삼켰고, 지금은 이른바 ‘거국체제(舉國體制)’의 장점을 활용한 과학기술 발전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두 개의 폭탄(원자폭탄, 수소폭탄)과 하나의 위성(인공위성)을 의미하는 이른바 ‘양탄일성(兩彈一星)’은 모두 1960

년대부터 차례대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지금은 AI와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에서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중국의 유학과 인재들이 귀국하여 과학 기술 발전에 매진한 것처럼, 현재 미국의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로 많은 인재가 귀국하여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 전략으로 국가는 점점 부강해지지만, 대다수 인민의 삶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다섯째, ‘운동’의 방식으로 목표(혁명/개혁)를 추진한다. 운동(campaign)의 형식은 중국과 같은 일당체제에서 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민을 동원하고 인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다. 당의 영도하에 위에서 아래로의 정치적 동원 방식을 사용하여, 국가 전체의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마오쩌둥 시기에는 각종 정치 운동의 수단을 통해 혁명과 생산에 매진하도록 모든 인민을 총동원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반부패와 당의 규율 강화, 군중노선 등 운동식 거버넌스 방법을 다시 강조하며 민족부흥의 꿈을 이루자고 한다. 이러한 운동의 방식이 개혁 이후 강조해온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 속에 결합하여 중국식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이처럼 정세에 대한 인식,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공존, 대내외를 연결한 적아의 개념, 과학기술 매진, 운동방식의 정책 추진과 선전 등 문혁 시기와 현재 중국공산당의 대응 방식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오늘날 문혁이 다시 되풀이된다는 것은 아니다. 최고 지도자의 호소에 대중이 호응하여 결합하는 대중운동의 방식은 앞으로 다시 등장하기 어렵다.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40년간의 시장경제를 경험한 이후의 상황으로, 개혁 이후 많은 인민은 주로 시장의 영역에서 생존해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시장 기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당국에 의해 조직된 일정한 단위 안에서 살았다. 당의 규범과 동원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문혁 당시 이러한 조직 구조 속에서 대중독재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 조직 시스템(체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시장 영역(체제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현재 공산당은 군중 동원이라는 운동의 방식을 활용하지만, 문혁 시기처럼 대중에게 발언권과 조직권

을 허용하는 운동방식은 금지한다. 대중노선은 강조하지만, 대중운동은 억압한다. 문혁 당시에는 인민을 동원한 대중 정치가 작동되었지만, 시진핑 시대 들어서는 법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 정화를 진행하고, 규율과 조직을 동원하여 국가 관료와 인민들을 단속하고 있다. 각자의 이익이 다르고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의 호응을 얻기는 어렵고, 대중 차원의 운동은 이미 형식화되었다.

V. 글을 마치며

중국은 자신의 어둡고 잔인한 역사를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 중국이 강국몽을 내세우지만, 아직 역사의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는 없고, 역사의 기억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 폭력적인 대중독재의 역사는 중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져다주었다. 혁명가의 자녀들에게만 면죄부를 준 불공정한 처우는 정신적 허무주의와 사회적 무감각을 키웠다. 혁명을 위해 싸웠던 대중조직 파벌 간의 투쟁은 무엇을 위해 싸웠던 것인지 깊은 공허감을 남겼다.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살육은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남겼다. 문혁으로 폭발된 대중의 에너지를 강압적 힘으로 눌러버린 결과, 남은 것은 약자들 간의 연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발당할지 모른다는 불신이다. 역사적 트라우마가 비극적 역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새겨져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다.

투고일: 2025년 3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2일

참고문헌

- 로벨, 줄리아. 2024. 『마오주의: 전 세계를 휩쓴 역사』. 심규호 옮김. 유월서가.
 허자오펜. 2018.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 임우경 옮김. 창비.
 王友琴, 「1966: 學生打老師的革命」, https://ywang.uchicago.edu/history/docs/1995_00_00.

pdf

Walder, Andrew. 2014. "Rebellion and Repression in China, 1966-1971". *Social Science History* 38(4).